



대학주보

서울·경기 RISE 사업 선정...최대 5년 63억씩 투입 판교 VI 창업캠퍼스 개설부터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까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RISE)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RISE 사업은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대학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서울은 RISE 사업 3차 년도 중간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2년이, 경기도는 2차 년도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면 3년이 각각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양 캠퍼스 모두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서울캠은 매년 약 15억 원의 예산을, 국제캠은 컨소시엄을 통해 매년 40억 원과 용인시 지역 매칭 금액 8억 원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국제캠캠퍼스]

국제캠과 명지대가 공동으로 참여한 ‘KnM+컨소시엄’이 RISE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KnM+컨소시엄’에서는 ‘KnM+EDU’, ‘GAIA-LINK’, ‘RISE-O:NE 플랫폼’, ‘판교VI캠퍼스’

스’, ‘AI 아카데미’ 등 5대 역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핵심은 경기도 미래 전략 산업인 G7(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 DX, 탄소중립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다.

홍충선 부총장(국제 RISE 사업단장)은 “명지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하고 있기에 반도체 공정 분야가 강하고, 우리학교는 설계 분야에 강하다”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어 컨소시엄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교육과정, 계약학과, 융합학과,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포함하는 교육 플랫폼 ‘KnM+EDU’를 구축했으며 우리학교 교육모델인 ‘KHU-EXCEL’, ‘AMAZING AI School’, ‘사회혁신 학기제’ 등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KnM+EDU 프로그램은 기술혁신과 기술지원 부문으로 나뉘게 된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지산학(지역·산업·대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G7 성장형, GX 자립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2면에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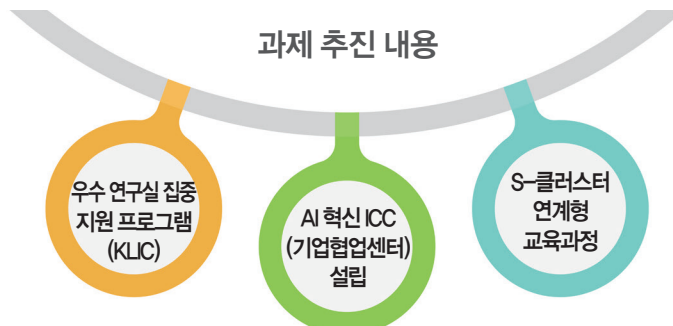
〈국제캠 RISE〉 명지대와 ‘컨소시엄 KnM+’ 구성

사업유형 :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서울캠 RISE〉 단독 시행

사업유형 :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국가장학 II 유형 대응 특별우정장학 35억...지원자격은 동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이재형 기자 leecheahyeong0107@khu.ac.kr

국가장학 II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우정장학(국가대응) 35억 원이 책정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우리학교가 국가장학 II유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올해 등록금을 5.1% 인상해 발생한 약 110억 원의 추가 수입 중 35억 원을 장학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장학팀은 “국가장학 II유형의 3년간 총지급액은 약 105억 원으로,

한 해 평균 35억 원이 지급됐다”며 금액 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3년의 평균 금액을 보는 이유는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 I 유형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우정장학을 지급했다. 약 6500명의 학생에게 약 16억 원이 지급됐다. 35억 원 중 남은 금액 약 19억 원은 오는 2학기 특별우정장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우정장학 지원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백분위) 획득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기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우정장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을 지원받은 학생 대상으로 지급돼, 국가장학금 I유형을 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당 장학은 등록금성 장학이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지급이 불가능하다.

특별우정장학 지급은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이다. 단,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 외 기관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개인이 즉시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 학자금 중복 지원으로 여겨져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타 대학도 등록금 인상 이후 국가장학금 II유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내 자체 장학 마련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등록금 인상분 69억 원 중 13억 원을 장학금으로 재투입

한다. 다만, 이는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전액 보전한 것은 아니다. 성균관대 학생 A 씨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학생 부담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국가장학금 II유형 대상자인 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못 받게 돼 걱정이었는데 학교에서 지원해 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장학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